

나사렛  선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설교 가이드

---

설교 1  
보낸 편지 : 분실물  
남자 20:21

---



## 들어가는 말

첫째 설교는 유명한 요한이 와 그 약혼자 다래가 해운대에 놀러갔다가 잃었던 약혼 반 이야기 로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는 가장 귀중 한 것을 잃어 버렸다가 다시 찾은 심정을 실감나게 표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20:21

에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가 가장 귀한 것을 “잃었”지만 그 의미를 잘 풀어 봄으로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I. 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 가. 예수님은 명백하게 지시 하셨습니다
- 나.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 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하라고 주셨습니다
- 다. 그 천국의 복음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이세상 이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 라. 우리는 출발점과 종점을 혼동하면 안됩니다

### II. 우리는 단지 보냄을 받은 것 뿐입니다 ... 처럼

- 가. 희랍어로 카 토 스 라고 합니다
- 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셨 습니다
- 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셨나요?
  - ㄱ. 순종적으로—하나님 께 완전히 순종하시는 삶으로
  - ㄴ. 성 육신 으로—말씀이 육체로, 우리도 말씀과 믿음 총만으로
  - ㄷ. 성령의 능력을 입으심으로—세례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요한 복음 20:23

### III. 우리는 왜 보냄을 받았 습 니까 ?

- 가. 예수님 과 같이 주님의 나라를 세상 끝까지 널리 전파하기위해
- 나. 그 사역을 주님 게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도록
- 다. 그 사역 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 맺는 말

맺는 예화는 예수님이 문 앞에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 하시며 따라 오라고 라 고 부르심.

# 이

요한과 김 다래는 완전한 인스타그램 약혼식을 하고 한국에서 미국 뉴욕 날라와 맨하튼의 세트를 파크 를 걷고 있었습니다 요한 이 벼 란 간 약혼 반지를 꺼내다래의 손가락 주니 다래는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지는 요한이 비밀리에 다래를 노래주 레고 혼자 산 것이어서 다래 손가락에 잘 맞지는 않았습니 다. 둘이는 손을 꼭 잡고 타임스퀘어를 거닐며 약혼의 기쁨에 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서로 팔짱을 끼고 걸을 때 요한이 사랑하는 다래의 손 잔등을 만지며 쓰다듬었는데 그만 그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와 땅에 떨어져 통통두어 번 튀 더니 떼구르르 굴러 타임스퀘어 옆 문 쪽 밑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절망적인 두 사람은 미친듯이 게이트 밑으로 떨어진 약혼 반지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때마침 근처에 있던 TV 방송기자가 그 약혼자들의 절망적이고 상한심령으로 애타하는 모습을 보고 찍어 TV 뉴스로 내보내 시청자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저도 물건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 합니다. 내게 자주 는 아니지만 잃어 버리면 찾을 때까지 마음이 미칠 것 같이 심란 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는 일은 여전히 생깁니다. 지금도 제 서랍 속에는 잃어 버린 양말 짝들이 이리 저리 굴러 다닙니다.

때로는 큰 것들도 일어 버립니다. 과학자들은 대기권 에서 수 백, 수천 만불 들여만든 우주선을 잃어버렸다고 도 했습니다. 과학자들과 그 감독들과의 오고 가는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 십시오. 수 년 전에 인도양을 건너가던 던 비행기 한대가 모든 승객 들 모두 태운 채 한꺼번에 감 쪽 같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역사 채널을 보며 버뮤다 마의 삼각 지대의 의문 때문에 많은시간 낭비 하지않은 사람들이얼마나 있겠습니까?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잃어 버리고 도 중요한 것 까지도 잃어버리기 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생 깁니다.

열왕기 하 22장해보면 요시아 왕 이 성전 보수를 했습니다. 대 제사장이 공사 중 율법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요시아 왕에게 그 율법 책을 읽어드렸을 때 왕 이자신의 미비함을 깨닫고 성의를 찢으며 애통하여 회개하고 거룩한 성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요시아 왕은 하나님께 맹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에 언약에 충실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똑 같은 일이 이 요한과 김 다래에 게도 일어 났습니다. 잃어 버렸던 중요한 것을찾은 것 입니다. 감사하게도 뉴욕 특별 수사대(NYPD) 의 민첩한 출동과 세계 소셜미디어의 전적 도움으로 이요한 과 김 다래 는 약혼반지를 찾고 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청혼하는 그에게 드디어 라 고 대답하였습니다.

요한 복은 20 장에 예수님은 사라지신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피터와 요한은 예수님을 보러 달려 갔지만 다른 제자들에게 황당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첫 째는 마리아 에게 나타나시고 그후 저녁에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당신 상처를 보이시며 평안 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 입니다.

아마 며칠간 제자들의 스트레스 혹은 예수님의 나 타심으로 미칠 것 같은 기쁨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때에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쁘게 일 하도록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들의 을 잃어 버린 것 같습니다. 요한 복음 21 장에 보면 베드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맞나 기전 세상 일인 고기 잡으러 다시 간 것을 보면 우리가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을 잃어 버린 것은 아닐 까요? 저는 근래 KJV 성경 공부에 783,137 단어들 이 사용됐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언어들입니다. 우리가 한 두 단어를 빼먹어도 허락되는 것입니까? 아마도 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 장에 말씀하신 대단히 중요한 말 씀 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고 그 분의 상처를 보이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계속하여 말 씀 하시되 성령을 받을 지어다.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 그 죄 가 사하여질것ियो. 만일 너희 가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얻지못하리라.”

와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줄 능력을 주셨습니까? 참으로 깊이 생각 해야 할 능력의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오직 22 절만 생각하면 21 절은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낮아져 섬기는 것을 지나쳐 버리고 궁극적 하나님과 같이 능력을 갖아 행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처 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간단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과격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윤리와 예수님을 닮는데 본이 되는 사명을 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말 씀을 따르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있지않나 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간단한 문장을 들으세요. 이번엔 생각 과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세요. 그 말씀이 당신의 영혼 속에 깊이 박혀 있게 하세요.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많은 교훈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두서너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로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의도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저들의 두려움을 잔잔케 하시며 그들의 눈을 보시고 밖 을 내다보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함께 모여 움 추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모든 사건을 눈으로 목격 라고 자기 들 앞에 장차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거의 두려움으로 믿음의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크리스탈 (수정) 같이 투명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들이 계속 하도록지시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시던 그 똑같은 사역을 제자들이 계속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수를 망각 할가 두렵습니다. 복음의 정의는 “기쁜 소식” 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 함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쁜 소식이지만 많은 우리들이 이 기쁜 소 식 이 오직 우리만의 구원 에서만 끝난다고 생각 하는 는 오류를 범하 지는 않는지 염려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의미 가 나 개인적 구원의 기쁜 소식 만이 아니고 죄에 빠진 온 세상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속 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다락방 제자들이 세상을 외면한것같이 세상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성령 충만을받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시작하신 그 사역 을 이어 받아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 사역 을 계속하는 것 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출발점을 우리는 끝내는 끝인 지점으로 잘못 착각하는 것 아닌가 하고 저는 염려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행의 시작이지 여행의 종점이 아닙니다.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이웃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써 -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선교 사명의 삶을 사는것 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사렛 교회의 핵심 가치관과 잘 일치됩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성결의 사람 뿐 아니라 우리는 선교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두째로 요한 복음2:21 절에 아 주 작은 말 한마디가 대단한 무게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 짧은 말 “처 럼”(카 토스) 그냥 경시 하고 넘어갈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고 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확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것처럼...” 은 처 럼

이라는 말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 하도록 유도합니다.

요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것에 관해 말씀 하신 것들을 풍성히 기록했습니다. (5:19-30, 8:29, 5:9-10) 그러므로 우리는 이말 씌과 같이 우선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똑같은 순종의 영으로 받아야합니다.

저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말씀에서 지시하심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실행하고 사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불 순종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의 지시 에 불순종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저희도 따라서 예수님 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 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기억 시켜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요한복음1:14). 어떻게 예수님은 보냄 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보냄을 받았습니 다. 신학자들은 “성 육화” 라 고 하지요 - 마리아의 태내에 거룩한 생명의 불씨 가 잉태하여 우리 인생들이 태어나 모두 경험한 고난 의 삶, 실제 삶 속으로 태 어 나셨습니다. 이는 요한 복음 음20장 21 절에 분명한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안전한 다락 방에서 떠나서 고난 의 실제 삶 속으로 돌아가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저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자의 사랑을 몸 안에 담아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들 일상 생활에서 나누듯이—사람과 사람, 눈과 눈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이 얼마나 명백한 부르심입니까?

저는 로마서 12:1-2 관한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을 사랑합니다. 그 분은 말했습니다. 전 당신들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심으로: 당신의 삶가운데 매일을 통상적으로 하는 모두를—자고, 먹고, 일하러 가고, 삶의 주변을 걷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모두 제물로 드리세요.” 이것이 보냄을 받는 본질 혹은 옛센스 가 아닙니까?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우리는 복음을 우리 안에 담은 그릇으로 다닙니다.

그 짧은 말 “처럼” 속에는 우리가 잃어 버려서는 안될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신 본질 에센스에 관해 너무나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 입니다. 요한 복음 20 장에 있는 성령 주님과 오순절 성령의 오심에 관해 신학자들은 논란 이 많습니다. 저는 그 논쟁에 참여하고 싶지않고 대신 한가지만 분명히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받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였고 보냄을받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역을 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역사 속 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을 세례를 주시고 내주하시며 능력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 가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특별한 길로 보냄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 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세상에 오신 목적은 천국의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상기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 한 것처럼 복음은 온 세상 의 땅끝 까지 누구나 모든 족속, 모든 언어, 가깝거나 먼 모든나라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복음은 어떤 한지역이나 민족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사렛 사람이 된 것을 사랑하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 교단이 태동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드렸다는 것 입니다. 우리가 어느 항공기로 어느 나라에 착륙 하더라도 얼마 안 걸려 곧 나사렛 사람들 을 찾아 낼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유산은 요한 복음 20장의다락 방에서부터 온 세계열방으로 직접 퍼져나갔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재림하실때까지 우리가 할 사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희생적이고, 성 육신적, 성령, 능력으로 하신 예수님의 사역 이 “위급함” 이라는 도장이 찍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성결은

단지 우리를 보호하는 것과 우리끼리만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만 주실수 있는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영향을 끼치도록추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필요한 시급 할 뿐 아니라 계속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매일 매분 마다 250애기들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거운 마음이 되는지요! 누가 그들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할 것 입니까? 누가 들에게 거짓없는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의 이웃에서 학교에서직장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 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 봅시다. 만일 예수님이 나의 롤 모델이라면 예수님은이세상에서 누구에게 사역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사역에서 무시하거나 제외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분의 복음을 가지고 이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 맺는 말

저는 전에 한 목사님이 어린 애기들 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이 예화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방에 딱딱 한 것과 날카로운 것으로 딱 채우거나 애기들 뒤에 숨어 있다가 밀어 부치지 않습니다. 방에 있는 모든 위험한 것들을 치웁니다. 애기들을 딱딱한 것에 부치지 않도록 합니다. 애기들 앞에 좀 공간을 열어놓고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 가며 우리에게 오라고 걸음마를 하라고 인도 합니다. 저의 첫 아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휘청거리다가 혼란 스런 표정으로뒤로 넘어지던 모습을 기억 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 걸려 같이 잘 걷더니 그후 18년 동안 그 애를 따라 다녀야 했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복음 20 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아닌가요? 예수님이 처음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분 이고 희생적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하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나오셔서 움 추리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였고

사명으로 나아가라고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느사역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의 사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가셨습니다. 길을 예비하시고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능력을 입히셔건 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말씀과 교회 전통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닦으셨고 우리를 주님께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계선교 에 참여하고 사역하게 하십니다. 와우! 이 얼마나 놀라운 초청 과 모험입니까? 그리스도안에 얼마나 뜻있는 삶입니까?

당신은 좀 신경이 써지십니까? 전엔 어떻게 해 본적 있으세요, 거름 마 배우는 두 살짜리 애기처럼 일어서 걸으려 다가 털썩 주저 앉은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확실히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열등감에 사로 잡혀 본적 있으십니까? 요한 복음 20 장에서 예수님 첫 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쟈 어다! 하신 말씀을생각해 보 십 시요. 주님이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손의뿔 자국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

설교 2  
보낸 사람 : 배달 시스템  
매튜 4:23, 9:35

---

## 들어가는 말

이 메 세 지의 시작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중요성을 손에 잡듯 이 쉽게 이해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무엇을 아는 것 과 또 아는 것을 실천 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북미주에서 인 터 넷 상품 구매가 통 상화 하고 있는 데 이 설교 아이디어를 준 기초 가 되었습니다. 큰 아이디어는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침, 설교, 치유 그리고 교회, 또한 우리 개인들로 특징 지어졌다는 것이며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그 사역을 계속 나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보냄 받음씨리즈의 두째 설교입니다. 잃고 찾는 대한 아이디어를 길러줍니다. 20:21 절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처 럼 말씀을 파고 들어가 설명하면서.

### I. 예수님의 전달 씨 스템

- 가. 마태 복음 4:23, 9:35 에 기록된 예수님 사역 의 추적
- 나.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본보이심

### II. 예수님께도 진실 교회에도 진실

- 가. 이 섹션에는 예수님의 사역 을 설명하고 교회의 사역 설명을 시도했음
- 나.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료하신 사역을 설명하므로 오늘 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과 동일하므로 오늘날에도 청중 이 메 세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 III. 교회에도 진실 나에게에도 진실

- 가. 이 섹션에는 복음의 메 세 지로 개인을 만지 시도록
- 나. 청취자가 자기 개인이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긍휼 사역 하도록 책임의 느끼도록

## 맺는 말

맺는 예화는 설교자가 자신의 예화를 들 수 있습니다. 청중이 설교를 들으면서 전도의 책임을 느끼며 전도, 제자 훈련 긍휼 사역의 방법을 모색 하도록 격려함.

# 전

자 산업은 거대합니다 온라인으로  
소매하는 아마존 모든 것을 다 팝니다. 전통적  
상점 까지도 온라인 게임을 배우기 시작  
했습니다. 감사절과 성탄절 때에 미국에서  
119만불 즉 1억 1천 구 백만 불의 물품이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되었습니다. 달라  
가치가 전년도에 비해15% 상승 했습니다.

온 라인 매장 사업자들도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 하는 온갖 물품들과 과  
물량들을 준비해 놓는데 만일 좋은 배송  
시스템이 없다면 그 물품들은 창고만 가득  
채워 놓고 마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온 라인 사업은 택배 시스템, Fed Ex나  
UPS, DHL 없이 사 업이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웹사이트 에  
들어가보면 페 텍 스는 명절 때 (감사절  
성탄절), 400 밀리언 4억 만개의 패 케 지  
를 배달했고 유 피 에스 는 750 7억5천 만  
개의 패키지 들을 배달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배달의 방법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델리 버리 시스템) 배달 시스템 의 문제는  
오직 온라인 쇼핑 뿐만이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아무리 머리가 총명할 짜라도  
알맞는 의사 소통의 기술 이나 정보 과학  
기술이 없으면 그 모든 총명은 선생님의  
마음 속에 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1000  
마력의 자동차는 파워를 바꾸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데도 어디에나,  
거리를 달릴 수 없습니다. 기아들, 트랜스  
미션, 축, 바퀴, 타이어 등 모두 관계되어  
바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부속이

배달하는 차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입니다. 복음은 아마존에 있는 보물 보다 훨씬  
귀중하고 수세기 동안 내려온 여러현인들의  
지혜보다 더하며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알맞는 배달  
시스템 이 없으면 세상을 구원 하고자 하는  
선교 사명의 의도와 달리 매우 비효과적으로  
복음은 신자들의 마음과 심령의 창고 속에  
실제적으로 갇혀 있게 될 뿐입니다.

마태 복음은 아름답습니다. 긴 족보 이야기  
끝에 동방박사 이야기와 예수님이 애 급으로  
피난 가신 이야기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속히 앞으로 가서 세례 요한 과 곧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의 기간, 복음 전파의  
시작과 제자들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제 5 장에서 7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긴 가르치심의  
기록에 예수님은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나라의 삶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시골 갈릴리의 랍비의  
가 자기를 따르라는 의미가 이 가르침을  
완전히 놓랐습니다.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서  
한자 치료 여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은 환자를 치료  
하셔서 온전한 건강을 되 찾아 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순간부터  
이기적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마태는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태는  
전달방법 관해 세밀하게 이해하는 듯  
합니다. 마태는 복음에 관하여 그 전달  
방법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마태는 예수님 분주히 하시는  
사역이 가르치심, 설교하심, 치료하심 요약  
합니다. 후에 9장 35 절에 우리는 또한  
그와 유사한 사역의 요약을 봅니다.

이 두가지 장의 내용에 기록된 숨어있는 예수님 사역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다니시며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료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 요약물 4장 23절에서와 9장 35 절에 양쪽 다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된다고 확실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향해 두개의 화살 모양의 전등 양쪽에서 번쩍 번쩍하며 가르치며 비취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역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입니다.

만일 5장세 7장의 산상 수훈이 복음의 머리와 마음이라면 그 담에는 8장과 9장은 손과 발입니다. 그 첫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지를 두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말해 줍니다. 8장9장의 들어가는 말에서 예수님이 5장에서 7 장 말씀 을 어떻게 사역으로 하는지 주님이 직접 보여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가르치심 설교하심 그리고 치료 하심에서 예 하나님 자신이 기쁜 소식 의 배달 방법임을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 1. 예수님의 전달 씨 스템

마태는 예수님 첫 짜 전달 방법이 가르침 이라고 기록 합니다. 마태복음 4:23 절에, 예수님은 갈리리전체를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심을 듣는 사람 마다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계속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르치셨다고 주목하여 말했습니다(7:28-29).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정식으로 가르치실 때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도 가르치셨습니다. 현재 많은 교회에서 사용 하는 우리가 하는 일대일 제자 훈련을 생각 해 보세요. 말할 것 없이 이것도 예수님의 방법이 었습니다. 먼지 폭석 거리는 길을 걸으며 밤엔 노천에서 별을 보며 잠자며 낮에는 군중 과 더불어 어울리며, 위기를 모면하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 에서도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며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 주셨습니다. 1세기의 참 라비닐 전통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 그분의 말씀과 행동에 자신들을 고정시켰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 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본보기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이 실현이요 그리고 그분 참으로 메시아인것을 증명합니다. 마태 복음 5장 고과 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의 바로 메 터 와 그제자들에게 그 바로 메 터를 맞 추어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은 다른 경우 들에도 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또다시 갈릴리 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4:23, 9:35). 예수님 자신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 느니 라” (마태 4:17) 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 지!

우리는 마태 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마태 는 우리가 절대로 빼 놓 수 없게 합니다! 마음이 상 한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본질이 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목적인 4장 23절 과 9 장:35절, 에서... 백성중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9장은 중풍 병자의 치료로 시작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복음과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 위에 누인 채 그 사람을 달아 내린 것을 지적 한 것 입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이야기 입니까? 누구나 그런 친구가 필요 합니다. 마태를 부르신 후 금식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죽은 다 비 다를 일으키시고 혈루 병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누가 이 극적인 같은 광경을 잊겠습니까? 마태 복음9:18-26?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동시에 그 몸에 채우셨는지요! 거기에서 두 장님이 긍휼을 배 푸 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병어리 귀신 들린 사람도 고 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34절 속에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나사렛인으로 그분이 우리가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이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합 한 것이 있습니까?

## II. 예수님께서도 진실 교회에도 진실

저는 우리에게 필수인 것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한 복음에(14:12)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보다 더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나는 이 말씀에 이 함축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 보다 더 큰일을 해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한 본질적인 구절을 잃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하신 일을 할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교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은 무엇 인가요? 마태 복음에 따르면 그것은 가르침과 설교와 치유입니다.

요한 복음에 있는 구절들과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것이 제게 는 명백해 보입니다. 마태 복음 28:19 절에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이 하신 것을 저들도 할 것 이라고 단호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예수님 승천 하신 후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님의 도구입니다. 제 주장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전달 방법이 진실이 무엇이 었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진실된 전달 방법 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르침 설교, 치유를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

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는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유할 것입니까?

먼저 가르침을 생각 해 봅시다. 주일 학교와 소그룹 성경공부, 성경 구절 암송, 멘토링,

청소년 사역, 어린이 사역, 블로그, 카카오 토크, 텍스트 등이 복음 사역에 생명선 입니다. 이모든 사역들은 교회의 가르침의 팔입니다. 설교도 중요합니다. 설교는 적은 시간 소요되며 매우 적은 량의 성경구절을 일년 동안에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데로 침투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일 제자훈련을 통해 삶 전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도록 부르셨습니다. 예배 가 제자 훈련에 주요한 역 활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지 예배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나 변화된 것 아닙니다. 실제로 제 경험을 보면 제자훈련에 받은 사람들이나 양육을 받은 신자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 도하고 주님께 열정 적으로 섬깁니다. 또한 그들의 오랜 믿음의 여정도 더욱 견고하며 만족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때 중앙 감독 님들께서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 십 시요!” 라고 하사는 말 씀을 듣습니다. 만일 예수님 로 그 자리에 임 재 하셨다면 기쁘시게 “아멘”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전달 방법은 가르치심 이었습니다. 교회도 그 진실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 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 었습니다. 마태복음4:23과 9장 35 절에 의하면 예수님 은 또한 설교 입니다. 산상 수훈은 의문의 여지없이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능력 있는 설교의 본보기 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한 두번 이상은 마태 복음 5장엿 7장을 설교 씨리즈 로 해보려고 시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쓴 현재 저의 교회에서 두 소 그룹이 산상 수훈 성경 공부를 하기로 결정 했답니다.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의 생명과 그 깊은 메 세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는 우리 문화와 정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메 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지상의 어떤 왕국도 버리고 하나님 나라만을 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독특한 부르심에 조금도 혼돈 될 것이 없습니다. 설교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고 원하시는 사람들로 바뀌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 재 강조 하는 좋은 기회를 부여합니다.

설교의 자리는 우리에게 회중 모두가 성령의 능력 하에서 연합된 몸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이 바로 우리의 천국이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천국 여행의 동반자들 인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단체로 확인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설교 사역으로 그를 따르도록 전도의 그물을 멀리 그리고 널리 던지셨다고 믿습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하고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가르침과 설교 둘은 우리 교회들이 처음부터 늘 해왔지만 예수님의 세번째 전달 방법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보듬어야 할가요? 그것이 심각한 질문이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깊이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도 치유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하는 기도 중에 병자의 치유를 위해서 또는 치유의 도움을 요청하는 도가 가장 많을 줄 압니다. 이는 좋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위해 또 예수님의 치유의 만져 주심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치유 이상 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더 있다고 주장 합니다. 그것은 긍휼 사역 입니다. 긍휼 사역과 치유 사역은 직접적으로 지역사회 내의 사람들의 필요를 사역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입원한 적이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교회의 치유 사역에 대하여 제 관점 이 좀 바뀌 었습니다. 제 아내 입원중에 사랑 하는 친구들로부터 받는 모든 염려의 전화, 텍 스트, 카드, 꽃 부케, 방문객 들 모두가 제 아내가 빨리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제 아내는 교회 가족들의 긍휼을 담은 연락들을 하자 마치 야생화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치유하거나 우리를 치유할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긍휼을 베풀거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 하십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 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교회가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역할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알게 된 문구인데 예수님의 마지막단계인 세번째 전달 방법을 요새 현대 세상 말 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것은 네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모두가, 누군가, 누구도, 그리고 아무도  
중요한 일을 마쳐야 했다  
모두가 확신했다  
누군 가 할 것이라고  
누구 도 해치울 수 있다고  
그러나 아무도 안했다  
누군가 그것 땀에 화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모두가 할 일이기에  
모두가 생각했다 누구도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모두가 안 할 것을  
결과로모두가 누군가를 비난했다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을 누구도 안했을 때.







나사렛  선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21

을 방문하셔서 귀하가 어떻게  
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nazarene.org/missions](http://nazarene.org/missions)